

채 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홍 나 영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

채 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홍 나 영

인 준 서

홍나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내현적 자기애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상도 지역의 대학생 332명을 대상으로 직업미결정 척도, 내현적 자기애 척도, 부모 양육 태도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미결정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하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일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였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일수록 내현적 자기애 정도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진로미결정 수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적인 양육태도가 내현적 자기애, 진로미결정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합리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 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본 결과, 내현적 자기애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내현적 자기애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주요어 : 진로, 진로상담, 진로미결정, 양육 태도, 내현적 자기애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5
1. 진로미결정	5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11
3. 부모의 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 및 진로미결정의 관계	19
III. 연구 가설	28
IV. 연구 방법	29
1. 연구 대상	29
2. 측정 도구	29
3. 연구 모형	33
4. 자료 분석	34
V. 연구 결과	35
VI. 논의 및 제언	42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29
<표 2> 직업미결정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30
<표 3>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31
<표 4> 부모 양육태도 척도의 하위차원 내용	32
<표 5> 부모 양육태도 척도의 하위차원별 문항 구성	33
<표 6>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35
<표 7> 성별, 학년별에 따른 진로미결정 수준의 차이	36
<표 8> 부모 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 진로미결정의 상관관계	39
<표 9>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41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 모형	34
--------------------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70년대 중반 본격적인 산업화가 추진된 이래로 약 3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신 고도의 성장을 일구어 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문명의 급속한 성장에 부응하듯 산업 구조 또한 빠르게 변해갔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는 한편, 사회 각 분야에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화된 인력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빠르고 다양하게 전문화되어가는 산업 구조 속에서 직업을 결정하는 일은 점차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흥미, 가치관, 미래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나 전공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 현실 상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다양하고 충분한 고찰의 과정 없이 대학에 불가피하게 입학한 경우도 있다. 또한 입학할 때 이미 전공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대학생활 부적응, 전공에 대한 학습동기 미흡, 진로목표의식 부족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소신 있는 전공 진학이 아닌 경우에는 심각한 진로불안에 노출되며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더욱 낮아지고 진로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올바른 진로태도를 정립하기 힘들며, 졸업 후 자신의 진로결정을 더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졸업 이후의 직업세계도 충분한 준비 없이 참여하게 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로 각 대학의 상담

센터나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재학생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진로문제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서강대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08; 서울대학교 대학생생활문화원, 2006; 고려대 학생상담센터, 2003; 연세대 학생상담소, 2001; 이화여대 학생상담센터, 2000). 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의 실태조사(2006)에서 대학생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학업과 진로’ 73.2%, ‘대인관계’ 27.4%, ‘가정의 경제 상태’ 22.6% 순으로 나타났고, 동덕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2007)에서 참여하고 싶은 개인상담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로는 ‘진로 문제’ 44.6%, ‘인생관 가치관 문제’ 17.4%, ‘학업문제’ 12.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미결정의 다양한 원인을 밝히려는 시도는 오랫동안 진로 관련 연구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는데,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낮은 자아정체감, 불안, 우유부단 등의 다양한 심리내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탐색하였으며, 최근에는 가족이나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같은 개인간 변인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진로결정은 부모와 같은 중요한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 환경, 사회적 지지와 장벽 등의 맥락적인 변인과 더불어 자신의 성격, 능력, 흥미, 가치와 같은 개인 내적인 변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이다(Lent, Brown & Hackett, 1994). 그러므로 진로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차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로상담에 있어서도 내담자의 총체적인 성격적 특성과 그들이 처한 환경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기존의 연구들처럼 단순히 각각의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진로상담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편적인 심

리적 특성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특정 성격구조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적 변인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의 삶, 즉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 지위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의 선택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의 과정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 이처럼 진로를 결정하는 일은 개인의 일생을 통해 성취해야 할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 효과적인 진로 결정은 자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그것이 계획과 연관되어 인지적 일치가 이루어질 때 나타난다(Hilton, 1962).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자아상을 형성하여 자기 지각의 척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진로결정과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 교육의 보편화로 인해 교육을 완수한 이후의 발달 과업인 취업과 결혼이라는 성인기로의 전이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기의 변화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혼란을 가져왔다. 청년들은 과거에 비해 빨리 자라며 사춘기에 일찍 이르지만 빨리 성장한다고 일찍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Apter, 2001).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보다 수평적인 관계로 재조정하여 자녀를 성인으로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Bigner, 2006). 그러나 성인기로의 전이가 늦어짐으로 인해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청소년일 때의 양육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수 있다. 성인이 된 자녀를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의 방식과 동일하게 대하는 것은 자녀가 독립적인 성인으로 기능하는 것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반면, 자녀는 부모에게 더 의존함으로써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이 되는 것을 미루게 된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

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진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겸손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던 과거와는 달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여 인정받으며 경쟁에서 이기고 최고가 되는 것을 중시하는 등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애적인 성향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자기애는 드러나는 양상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나뉘어진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현적 자기애는 그 자체의 과민성으로 인해 소심함과 취약함, 불안, 직업적·사회적 정체성의 불확실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한수정, 1999; Akhtar & Thomson, 1982), 이는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심리적 특성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상 및 상담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외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치료 장면에 스스로 올 가능성이 매우 적은데 반해, 내현적 자기애를 지닌 개인은 그 자체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과민성으로 인해 우울이나 대인 불안 등을 함께 가져 상담이나 치료 장면에 오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런 개인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치료적 적용 가능성이 많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현적 자기애를 연구 변인으로 정하는 것은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이원희, 2001).

또한 자기애 성향의 원인 및 기제에 대하여 Freud(1915)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Kernberg, 1975; Kohut, 1971; Millon, 1981)은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Kernberg와 Kohut는 부모의 거부적이고 냉정하며 애정결핍적인 양육 등이 원인인 ‘부모의 자녀 과소평가 가설’을 주장했고, Millon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대평가 가설’을 주장

하면서 자기애는 아동기 초기에 있어 부모가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애정을 쏟아서 그런 부모가 주는 비현실적인 강화에 의해 발달되어, 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특별대우와 거대한 자기상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위 학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기애적 성격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부모-자녀의 긴밀한 혈연관계를 유지하는 가정형태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기애적인 성향은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으리라 생각된다.

현대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성인기 전이 과정이 길어졌으며 개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청년기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나 청년기에 대한 연구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적게 받았다(Gitelson & McDermott, 2006; Ryff & Seltzer, 1996). 그리고 성별, 학년별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수준을 살펴보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도 일관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전이 과정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별 진로미결정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중요한 해결 과제로 부상 중인 진로미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 그리고 ‘취업’이라는 발달과업을 이행해야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진로상담에서 전문적, 차별적 개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미결정

1) 진로미결정의 개념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분야는 오랫동안 진로발달 분야에서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Lucas, 1993). 그러나 이러한 오랜 관심에도 불구하고 진로미결정의 정의와 특성에는 아직 많은 혼란이 남아 있어서(Saunders, 2000)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이는 진로미결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상당한 양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들을 미결정자로 볼 것인가에 대해 연구들 간 일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혜성, 홍혜경, 1998).

우선, Savickas(1995)와 Gordon(1998)에 따르면 진로미결정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는 이분법적 차원에서 진로미결정을 다룬 것이다. 즉 초기연구는 진로결정자, 미결정자의 단순한 이분법에서 출발하였으며(Parsons, 1967), 그 후 진로미결정자는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 즉 발달 단계 상의 미결정자(undecided)와 성격적으로 결단성이 부족한 사람들, 즉 만성적 미결정자(indecisive)로 구분되었다(Vondrak, Hostetler, Schulenberg, Shimizu, 1990).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큰 압박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 직업의 세계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때까지 결정의 과정을 연기한 사람들을 말한다. 반면, 성격적으로 결단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진로와 관련된 결정 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

양한 결정을 못하는 어떤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높은 수준의 모호함, 좌절감, 불안, 불분명한 정체감, 낮은 자기확신과 자기존중감, 그리고 외적통제소재 등을 들 수 있다(Fuqua & Hartman, 1983). 그러나 이분법적인 분류로는 진로상담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인 내담자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 진로상담의 장면에서 진로미결정자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자의 경우에도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을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밝히고 있다(김봉환, 1997; 장선철, 2004; Lee, 2001).

둘째는 단일 차원의 연속 개념으로 진로미결정을 보는 것이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많은 연구자들이 미결정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을 멈추고, 그 대신 연속선상의 단일차원 개념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Holland(The Vocational Decision-Making Difficulties Scale, 1973)와 Osipow(Career Decision Scale, 1976)가 대표적 인물에 속하는데, 이들은 진로결정의 연속선상에서 내담자들의 상태를 예측하는 척도를 고안하여 상담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결정의 과정을 대중화시키는 데에 공헌했다(Savickas, 1995). 또 Holland, Gottfredson과 Nafziger(1973)는 진로미결정자들이 진로선택을 미루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측정하는 진로결정곤란 척도를 개발하였고, 진로결정의 연속선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측정하였다. Ginzberg와 그의 동료들(1951)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한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성인 초기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Super(1957)는 직업 선택에 대한 발달단계이론을 제시하고 일생을 통해 필요한 진로발달의 개념으로 진로 결정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셋째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진로미결정을 보는 것이다. 이는 미결정자를 동질 집단이 아닌 서로 다른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인데(Slanley, 1988), 이에 따라 My Vocational Situation(Holland et al., 1980), Career Decision Profile(Jones, 1989), Career Factors Inventory(Chartrand et al., 1990) 등과 같이 미결정 차원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2세대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이와 같이 점차로 진로미결정의 다차원적 특성이 밝혀짐에 따라서 다양한 차원과 유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진로미결정은 다양한 타입으로 나타나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구인이라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Hartman, Fuqua, & Jenkins, 1986). 즉, 자신이 추구하는 직업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상태를 뜻하는 진로미결정(career indecision)은 진로결정의 결정정도(decidedness)와 결단성 정도(decisiveness), 그리고 그 원인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유지선, 2004).

한편 Lucas(1993)는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미결정 학생들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자신의 계획을 우선순위에 따라 통합하는 과제만을 남긴 진로결정에 임박한 학생이고, 둘째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몰두해야하는 것이 어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곤란함을 가진 학생이며, 셋째는 동기부족과 무력감으로 인해 미결정적이며 제한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 넷째는 진로의 목적에 관해 고통스럽고 막연한 느낌을 가진 학생이고, 다섯째는 결정에 임박하였으나 직업이나 그와 관련된 행위에 비교적 관심이 적은 학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Lucas & Epperson, 1988). 이러한 미결정 유형들 가운데 첫째, 둘째, 다섯째 유형은 관련 정보의 제공과 발달상의 경험을 통해 미결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형들이지만, 셋째와 넷째 유형의 학생은 개인의 인성적 특성으로 인하여 진로결정에 대하여 보다 항구적인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성적인 무결정 상태를 반

영한 유형이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만성적인 무결정과 관련되는 개인의 인성적인 특성(불안, 우울, 불확실감, 낮은 동기, 만성적 미쁨, 자아개념발달의 지연, 자아정체감의 부족, 자존심, 열등감, 가족의 기대와 본인 능력 간의 차이, 가족과의 갈등, 부모나 사회에 대한 수동공격성 등)들은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김계현, 1988). 따라서 단순한 정보제공과 발달상의 경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안정적인 특징들과 관련된 미결정 유형에 대한 연구와 접근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안정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미결정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결정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진로상담의 입장에서 연구자는 ‘진로미결정을 자신이 추구하는 직업 및 진로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

2) 진로미결정 관련 변인

개인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구 사회학적 변인인 성별, 학년(연령), 학업성취수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계열, 그리고 개인 심리적 변인인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불안, 통제소재, 역기능적 진로사고, 성격 5요인, 자기애, 인지 양식, 또한 사회적 관계 변인인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 수준, 애착, 사회적 지지 등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인구 사회학적인 변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성별과 관련해서 진로미결정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진로결정에서 성차가 없다는 연구 결과(Betz &

Voyten, 1997; Osipow et al., 1976; Crites, 1973)가 있는가 하면, 성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성차가 있다는 결론 또한 남성의 진로미결정 정도가 낮다는 결과들(Westbrook et al., 1980; 김현옥, 1989; 송영숙, 1997; 이현립, 천미숙, 2004 등)과 여성의 진로미결정 정도가 낮다는 결과들(Taylor & Pompa, 1990; 조아미, 2002 등)로 나뉘는 등 서로 다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진로미결정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아 선행 연구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얻고자 한다.

학년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학년 간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경우에 학년 간 진로결정 수준의 차이가 있으며 4학년의 진로결정 수준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고향자, 1993; 김봉환, 1997).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의 진로결정 수준이 2, 3학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었다(최영미, 1998). 따라서 대학생 학년 간 진로미결정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그 외에는 학업성취수준과 진로결정 간의 정적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도 많은데(김현옥, 1989), 이 또한 관계가 없거나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의 진로발달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관용, 1996).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도 다수이나(Lucas, 1993; 김환식, 류창열, 1993; 차재권, 1998),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Goodale & Hall, 1976; 김관용, 1996; 이승국, 1999).

개인내 심리적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진로미결정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Taylor & Betz, 1983), 진로결정자기효능

감 척도(Talyor & Betz, 1983)를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관적으로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 간의 부적의 관계를 보고하여(Betz & Luzzo, 1996; Betz & Voyten, 1997; Taylor & Popma, 1990; 이기학 & 이학주, 2003; 유지선, 2004; 한주옥, 2004)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진로결정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아정체감도 진로미결정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진로 결정의 핵심적인 예언 요인이 되었다(Gordon, 1981; Guerra & Braungart-Rieker, 1999; Gianakos, 2001; 이억범, 김연희, 2004; 유영미, 문승태, 2005). 그리고 불안 수준과 진로미결정은 정적 상관을 보이므로(Fuqua, Newman, & Seaworth, 1988), 불안이 만성적 미결정자들을 확인해내는 일차 변별요인으로 밝혀졌고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모두가 진로미결정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송영주, 2001 재인용; 이혜성, 홍혜경, 1998). 그 밖에 내적 통제성 집단은 외적 통제성 집단보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과 의사결정에 더 개인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진로결정과정에서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Taylor, 1982).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미결정과 같은 진로결정 관련변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Lusting & Strauser, 2002; Saunders, Peterson, Sampson & Reardon, 2000; Wright, 2000). 자기애와 진로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최근에 시작되어 매우 부족하나, 김은석(2006)은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 간에 정적 관련이 있음을 밝혔고, 송연희, 강연우, 허보연, 하정희(2008)는 진로미결정이 내현적 자기애와 정적 관련, 외현적 자기애와는 부적 관련이 있음을 보고했다.

최근에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 변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애착이 강하고 대화를 많이 하며 우호적 관

계일수록 진로에 대해 정적 효과를 발휘했고(박수길, 2000; 신희경, 김우영, 2005), 사회적 지지 수준과 진로미결정은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석, 2006).

3) 선행 연구들의 한계

지금까지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변인들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연구들에는 다음의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는 진로미결정과 성격변인에 관한 연구는 그 범위가 다양하고, 동일한 연구주제에 관한 후속적인 반복연구가 많지 않아 진로미결정자들의 성격특성을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며, 그 다음으로는 심리적 변인들의 상관관계 연구만으로는 다양한 진로미결정 상태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김봉환, 김계현, 1995).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개인간 요인 즉, 가족과의 상호작용 혹은 사회적지지 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었다. 비록 몇몇 연구들에서는 부모와의 분리수준이 진로미결정과 관련이 적거나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는 결과(Blustein et al., 1991; Santos, & Coimbra, 2000)가 보고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 이해성과 홍혜경(1998)은 불안과 자아정체감이 부모로부터의 독립수준과 진로미결정을 매개한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이후 연구들(김은진, 2001; 송영주, 2001; 이영선, 김정희, 이영순, 1999)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였다.

한편 이지영(2004)은 여러 변인들을 다룬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만을 나타낸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진로미결정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성격 5요인 및 자존감을 사회적 변인

과 함께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개인내, 개인간 요인을 함께 고려한 것 외에도 단순히 각각의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통합적인 성격적 차원에서 진로미결정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대별되고 있다. 그러나 진로상담은 내담자 각각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상담전략을 선택하여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Vondracek, Hostetler, Schulenberg, & Shimizu, 1990)는 점에서 볼 때, 성격 5요인은 특정 성격군이 아닌 일반적인 성격적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기에 여전히 구체적인 설명력을 지니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김은석(2006)의 연구에서는 몇몇 단편적인 심리적 특성들에 대해 보다 폭넓은 조망에서 총체적인 설명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내현적 자기에 성격 특성을 개인내 변인으로 하고, 비교적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를 개인간 변인으로 하여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특정 대상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제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빠르고 다양하게 변해가는 현대 사회의 흐름 안에서 점차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내현적 자기에 성격 특성을 심리내적 변인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환경적 요인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가족체계 내 부모의 양육태도를 개인간 변인으로 하여, 이들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진로미결정의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진로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차별적인 개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 고자 한다.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1) 부모의 양육태도 개념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보호와 교육을 받으면서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양육자, 교육자로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양육태도를 정의한 학자들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양육태도란 하나의 문화양식으로서 부모가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이자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으로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뿐 아니라 정서, 인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Becker, 1964; Fishbein, 1975). 또한 자녀가 현재와 미래의 자아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부모가 보여준 태도 즉, 양육태도는 곧 자기 지각의 척도가 된다(Hauser, 1973).

국내 연구자에 의한 양육태도의 개념을 살펴보면, 양육태도란 부모나 부모를 대신한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 내현적 행동 및 지적, 정의적 특성을 의미하며, 자녀의 지적, 정의적 특성은 부모나 양육자가 어떠한 태도로 키웠느냐 하는 양육태도에 크게 기인한다(김영숙, 1988; 남상인, 1983; 오성심·이종승, 1982). 또한,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가르칠 때 나타내는 방향성과 감정적 색조를 지닌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경향성이다(유은진,

1987).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들 중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부모의 양육태도 배경 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Watson(1965)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족구성,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사회적 수준,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요소 등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성된다고 하였다. 양문현(1983)은 양육태도에는 부모 자신의 성격 뿐 아니라 정서 상태, 가치관, 신념 등이 반영되어 있고, 가족 구성,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사회적 지위와 함께 사회의 문화적 배경, 부모의 개인적 조건, 자녀의 개인적 조건 등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부모의 양육태도의 개념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의 성격, 행동, 태도, 가치체계의 형성과 정서, 인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 또는 양육자의 내·외현적 행동 및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지속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로 정의한다.

2) 부모 양육태도의 유형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한 이론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최근의 일로 부모-자녀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론화하기 시작한 것은 1910년에 S. Freud가 정신분석학을 발전시키면서부터였다. Freud 학파의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유아 초기의 과업인 수유, 이유, 대소변 훈련 등의 방법과 시기가 유아의 성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황혜자, 최윤화, 2003).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었으며 유형화하는 방법도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Freud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한 후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

계화한 사람은 Symonds(1949)로 그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정신분석학에 근거하여 임상적 사례에 비추어 거부-수용, 지배-복종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다시 수용은 간섭형과 불안형으로, 거부는 소극형과 적극형으로, 지배는 기대형과 엄격형으로, 복종은 복종형과 익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거부형의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애정을 거부하고 무관심, 별주기, 적대 감정의 표출, 조건식의 애정 행동을 보인다. 따라서 자녀들은 애정의 요구, 주의를 끌려는 행동, 반항, 공격, 거짓말, 도둑질, 이상 행동, 신경증적 경향과 같은 문제 행동을 나타낸다.

둘째, 수용형의 부모는 필요 이상으로 자녀를 보호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사회적 성숙이 늦어지고 의존성이 높아서 교우관계가 활발하지 못하고 고립되기 쉽다. 책임감이 약하여 일의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고 때로는 분열적 성격이 형성되기도 한다.

셋째, 지배형의 부모는 자녀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자녀가 도달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이런 가정의 자녀는 예의가 바르나 반항적, 투쟁적, 자학적 행동이 많다. 또한 수동적, 의존적이며 자립성, 창조성이 결여되어 있다.

넷째, 복종형의 부모는 맹목적, 익애적이며 거의 모든 시간을 자녀를 위해 소비하고 그로 인해 특유의 즐거움을 얻으려 한다. 따라서 자녀들은 정서적인 발달에 방해를 받아 유아적 상태에 머물게 될 위험성이 많아지게 되고 자기중심적, 반항적, 공격적, 비사교적, 억지, 의존성 등이 많이 나타난다.

Symonds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헌을 하였으나 정신분석학적 임상사례를 통해 연구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으로만 설명되어져 건전하며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설

명이 없었다는 결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Schaefer(1959)는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장기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신생아기부터 초기 청년기에 이르는 동안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함께 연구하여 어머니의 행동이 조직될 수 있는 두 개의 차원 즉, '애정-거부' 대 '자율-통제'를 제안하는 가설적인 원형모형을 제시하였다. Schaefer의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정적-자율적 태도는 연구 결과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이러한 유형의 부모는 자녀에 대해 자유적, 민주적, 수용적, 협동적인 태도를 갖는다. 이런 태도를 갖는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피한다. 이러한 양육 태도 하에서 자란 자녀는 능동적, 외향적, 독립적이며 사회 적응에 자신이 있고, 사교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신과 타인에 대해 적대감이 없다.

둘째, 애정적-통제적 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보이면서 극단적으로 엄격하지는 않으나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양육 태도 하에서 자란 자녀는 애정적-자율적 태도에서 자란 자녀들에 비해 의존적이고, 사교성과 창의성이 낮으며, 인내심에 있어서 대단히 강하거나 약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 애정적-통제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체벌을 통한 통제는 아니더라도 심리적 통제를 쓸 수 있다.

셋째, 거부적-자율적 태도는 자녀를 애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동시에 자녀가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두는 방임적 태도이다. 이러한 양육 태도 하에서 자란 자녀는 공격적이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한다.

넷째, 거부적-통제적 태도는 자녀를 애정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뿐 아

나라 자녀의 행동을 체벌 또는 심리적 통제로 규제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유형을 지닌 부모는 권위적, 독재적, 요구 반복적, 거부적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양육태도 하에서 자란 자녀는 수줍어하여 친구들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아에 대한 분노와 함께 내면적으로 많은 갈등과 고통을 지니게 되어 사회적으로 움츠리며 잘 적응하지 못한다. 거부적-통제적인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감정 표현 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시킨다.

이후 Baumrind(1971)는 부모 역할의 유형은 아동의 사회적, 성격적 특성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아동의 유형과 부모의 양육방법 사이의 관련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주의적 양육, 허용적 양육, 권위적 양육으로 나누었다(김숙이, 2005).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위주의적 양육형태의 부모는 자녀에게 즉각적이며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도록 요구하며 체벌이나 강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유형의 부모는 자녀에게 지켜야 할 행동규칙을 설정해놓고 절대적인 행동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그것에 맞추려고 한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불안감을 나타낸다.

둘째, 허용적 양육형태의 부모는 자녀를 독립적인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해야 된다고 믿는다. 자녀에게 자신의 행동을 가능한 스스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통제를 피하고, 규정된 규칙과 규율에 복종하도록 권장하지 않으며 그들의 자율감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규칙이나 규율은 거의 없고 자녀가 요구하는 것은 거의 수용하는 편이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들은 대체로 미숙하고 사회적 책임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권위적 양육형태란 가장 바람직한 양육형태로 부모들은 이성적인 설득, 명백한 권위, 또는 심리적 강화 등을 이용하여 자녀의 행동을 통제한다. 즉, 자녀에게 자유를 허용하지만 적절한 한계가 있고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애정과 확고한 훈육이 잘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있고 자아존중감이 높고 목적적, 성취지향적인 행동을 보이며 사회적 책임감이 강하고 유능하다. 또한 정서적 안정성이 있고 독립적이다.

한편 Maccoby와 Martin(1983)은 양육태도유형을 애정-적대, 자율-통제의 2차원으로 분류하면서 Baumrind의 세 가지 유형에 거부적이면서 애정도 없는 네 번째 유형인 방임적 양육태도를 추가하였다. 방임적 양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행동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자아존중감이 낮아 사회적으로 미숙하고 무능하며 책임감이 없고, 사춘기 이후 불량화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소희숙, 2003 재인용).

또한, Rohner(1991)는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설명하였다. 사람은 자라면서 부모 혹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애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애정의 정도는 아주 많은 것에서 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이 연속선을 부모의 애정적 차원이라고 하였으며 한쪽 끝에 수용하는 부모가 다른 쪽 끝에 거부하는 부모가 있다(이상무, 2004 재인용).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부모가 칭찬이나 자녀에 대한 좋은 말 등의 언어나 쓰다듬기, 안아주기, 웃어주기 등의 신체적 표현과 행동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자녀는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으며 협동심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다. 그러나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부담으로 여기고 인정하려 들지 않으며 무관심이나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자녀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부정적

인 자아개념, 적개심, 비행, 대인관계 문제 등 심각한 심리적 손상을 가져온다.

정원식(1975)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친애-거부, 자율-통제, 개방-폐쇄, 성취-비성취의 네 개의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였는데 각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애-거부는 부모-자녀 간에 서로 접촉하길 원하며 상호 간에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고 협동하며 감정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표현되도록 허용해주며 권위를 무조건 존중하고 윗사람의 결정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경향을 말한다.

둘째, 자율-통제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부모-자녀가 서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대하는 경향을 말한다.

셋째, 개방-폐쇄는 주위의 사물이나 타인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지 않고 대하며 미지의 사태에 대하여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기대하는 경향을 말한다.

넷째, 성취-비성취는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포부수준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를 격려, 요구하며 항상 활동하기를 권장하고 박력과 끈기, 주의력을 집중시켜 활동하기를 기대하는 경향을 말한다.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Schaefer(1965)의 양육태도 이론을 근거로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모 양육태도를 애정, 자율, 성취, 합리성의 네 차원으로 나누고 다시 각 차원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양극화시켜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네 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Schaefer의 애정-적대, 자율-통제 차원과, 정원식의 성취-비성취 차원, Hebb와 Bernstein의 이론에 기초를 둔 모형 중에서 합리-비합리

차원을 첨가하여 지금까지 유형화된 부모의 양육태도 차원을 거의 포함시킨 것이다(장영지, 1995). 각 차원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정-적대 태도에서 애정적 양육태도의 부모는 자녀에게 수용적이며 헌신적이며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분위기 조성애 힘쓰며 상담, 칭찬, 격려 등을 아끼지 않는다. 반면 적대적 양육태도의 부모는 자녀의 일이나 행동에 무관심하며 소홀한 편이고 자녀를 위해 시간을 별로 내주지 않으며 비난이나 체벌을 자주 가하고 자녀의 단점을 강조한다.

둘째, 자율-통제적 태도에서 자율적 양육태도의 부모는 자녀의 개성, 의견과 권리를 존중하고 지나친 감독과 규제를 하지 않으며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처리하여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습관을 권장한다. 그러나 통제적 양육태도의 부모는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고 전체적이며 엄격한 제한을 많이 둔다. 설명이나 이유보다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한다.

셋째, 성취-비성취적 태도에서 성취적 양육태도의 부모는 자녀가 높은 포부수준을 설정하여 달성하기를 격려하고 인내와 근면성을 권장한다. 또한 자녀가 끈기 있게 집중하여 일을 해내도록 기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비성취적 양육태도의 부모는 자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맡은 일의 책임 완수 여부에 무관심하며 새로운 일이나 경험 및 호기심에 대한 요구에 비협조적이다.

넷째, 합리-비합리적 태도에서 합리적 양육태도의 부모는 자녀가 갖는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중요시하며 자녀에게 일의 동기나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자녀와의 약속을 중요시 여긴다. 반면에 비합리적 양육 태도의 부모는 일의 동기나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우선시하고 자녀와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며 상황에 따라 쉽게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인다.

이상과 같이 학자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유형화하고 있지만 부모 양육태도의 유형에 따라 자녀의 인지, 정서, 행동의 영역뿐만 아니라 자아개념, 사회 적응 능력 및 대인관계 능력 등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인식된 경험의 종류와 질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에 관한 개인의 경험이며, 각 개인은 그들 경험에 대한 개인적 지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Rogers, 1951).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한 가지는 부모 스스로가 인식하는 양육 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자녀의 인식 정도이다.

Medinnus(1965)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이를 지각 수용한 학생의 지각 정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녀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아수용과 관련지어 지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자아수용이 높은 자녀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이다(김기만, 2006 재인용).

이승종과 오성심(1982)에 의하면 자녀가 부모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실제 양육태도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잘 대해 주어도 자녀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반대로 잘 대해주지 않는 경우라도 자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뜻한다.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지각하는 태도에 따라 자녀의 정서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자녀가 주변의 환경을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부모 자신의 보고보다는 자녀의 보고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실제적인 발달특성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는 매우 중

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결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효과적인 진로 결정은 자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그것이 계획과 연관되어 인지적 일치가 이루어질 때 나타난다(Hilton, 1962).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자아상을 형성하여 자기 지각의 척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진로결정과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애정 지향적, 자율 지향적, 합리 지향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지각될수록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노호은, 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에서 청소년들이 부모의 수용-거부 양육태도와 자율-통제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개념이 높고, 부모의 성취압력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 개념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전현주, 2002). 일반적으로 부모의 애정적, 수용적 태도는 자녀의 사회성, 안정성 등의 성격 특성과 자아존중감, 인지 능력, 성역할 발달 등에 긍정적인 상관을 갖는 반면, 거부적, 제한적,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부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연구들(김기만, 2006; 김정희, 2000; 이현숙과 조한익, 2004; 조현진, 2003)에 의하면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의 모든 차원(애정, 자율, 합리, 성취)은 자녀의 진로결정과 정적 상관을, 미결정과는 부적 상관이 있다고 한다.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에 관한 이연숙(2000)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진로결정, 진로정체감을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숙(200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수준의 영향 연구에서 진로확신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거나 자율적이라고 지각할 때 진로확신이 높아지고,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이라고 지각할 때 진로미결정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했다. 김정희(2000)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진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어떤 결정을 든 결정수준이 높고, 결정에 대한 확신이나 이행의 정도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조현진(2002)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성취 지향적 양육태도와 자율 지향적 양육태도가 진로결정수준과 직관적 진로의사결정유형에, 어머니의 합리적 양육태도는 의존적 진로의사결정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합리적 양육태도는 직관적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또 이미숙(2004)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애정적 양육태도일 때 참여도와 독립도 부분에서, 자율적일 경우 타협도 부분에서, 성취적 양육태도일 경우 참여도 부분에서 각각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이는 진로확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남수현(2010)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진로태도성숙 하위 요인 중 목적성, 확신성, 독립성에, 어머니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결정성, 목적성, 독립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성취적 양육태도는 합리적 의사결정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네 가지 양육태도는 자녀가 진로결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진로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반면에 직관적, 의존적인 진로의사결정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선자, 2000; 김애순과 우현주, 2003; 김기만, 2006; 강정임, 2008).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가 어느 한 방향으로만 양육하는 것보다 네 가지

차원의 태도를 적절히 조화시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가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결정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의사결정유형이나 진로태도성숙 등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거의 없다. 많은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진로결정을 탐색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 해당 연령층의 발달과업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미루어볼 때,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관계를 연구하여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의 원인을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밝혀보고, 좀 더 차별적이면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효율적인 진로 상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3. 부모의 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에 및 진로미결정의 관계

1) 자기에 개념

요즘은 구조적이고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띠며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 사회의 분위기로 인해 인간 존재의 안정감과 자기가치감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기에적 성향이 점차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자기애(自己愛)는 광범위한 의미로 볼 때, ‘자기(self)에 대한 심리적인 관심의 집중’을 뜻하며(Bursten, 1982; 강선희, 2002 재인용), 보다 제한적 의미에서는 ‘자기 관심에 대한 불균형, 즉 외부로부터의 확인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자기몰입적이라 간주될 정도로 다른 문제들을 도외시하는 경향’을 지칭하는 것이다(McWilliams, 1994). 심리학에서는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애(Narcissism)라 하며, 자기애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직업적·사회적으로 장애를 일으키고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유발할 경우 자기애적 성격장애라고 부른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자기애는 Freud에 의해 인간의 심리현상을 설명하는 중요 개념으로 등장했고, 이후 정신분석 이론과 임상 실제에서 계속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오고 있다. 오늘날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현대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자기애는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구성 개념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자기애에 대한 심리학적 논의와 연구는 주로 Freud, Kernberg, Kokut으로 이어지는 정신분석적 접근과 Milon, Masterson으로 대표되는 사회학습이론적 접근, DSM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진단 준거를 기반으로 한 성격심리학적 연구들이 대표적이다(한수정, 1999). 그러나 자기애의 양상이나 심리적 기제, 발달 과정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아직도 자기애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자기애적 성격이 자기과장적이고, 자기몰두적이며, 웅대한 자기개념을 가지며,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김진순, 2008).

우선 Freud(1957)는 ‘자기애란 심리적 에너지가 자신에게로 향해져 자신의 신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태도’라고 보았다. 이러한 자

기에 성향은 어린 시절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속성이지만, 성장하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자기애가 성숙한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면 병적인 자기애가 나타나게 된다. 신생아는 모든 관심을 자신의 몸에 집중하며 양육자의 애정과 보살핌 속에서 자신을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일차적 자기애’라고 한다. 이후 점차 성장해가면서 자신과 외부 세계를 구분하게 되고 대상애(object-love)가 발달하는데, 이것이 ‘이차적 자기애’이다. 이차적 자기애를 통해 아동은 타인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고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성숙하고 건강한 자기애가 발달하지만,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겨 일차적 자기애 상태에 고착되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심적 에너지가 자신에게 집중되게 되는데, 이것이 병적인 자기애인 것이다.

Freud 이후 자기애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시킨 학자는 Kernberg와 Kohut이다. 우선 Kernberg(1975)에 의하면 자기애는 양육자로부터 적절한 애정을 받지 못한 아동에게서 발달한다. 냉정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양육자와 함께 생활한 아동은 스스로를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고 느끼게 되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강화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동시에 부모에게 분노를 투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점차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부분을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현재의 자기를 이상화해 웅대한 자기상을 형성해나간다. 이때 받아들여지지 못한 자기의 모습은 통합되지 못하고 분열된다. 따라서 Kernberg에 따른 자기애는 과도하게 스스로에게 몰입하고, 야심이 강하고, 열등감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웅대한 내용의 공상을 잘하고,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지혜와 권력, 아름다움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또한 공감능력의 부재와 만성적인 불확

실성,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 및 강한 질투를 보인다. 이에 이들은 만성적인 지루함과 공허감을 느끼기 쉽고, 자신의 정체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착취적인 대인관계와 함께 만성적인 강한 시기심을 나타내 보인다.

한편, 자기에로부터 대상으로 이행한다고 제안한 Freud나 거대자기를 병리적이고 방어적으로만 본 Kernberg과 달리, Kohut(1971)는 유아가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양육자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혼동하고, 양육자의 공감적 양육 실패를 자기구조에 통합시키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발달이라고 주장하였다. 자기에적 성격장애란 자기 표상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에적 패턴이 부모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적절한 이상화 모델을 제공받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고착상태라고 하였다. Kohut이 말한 자기에적 성격특성들은 자신에 대한 비현실적인 웅대성과 과장된 자기존중, 타인의 주목 요구와 타인에 대한 부적절한 이상화, 대인관계 유지의 어려움, 유머와 공감능력의 부족, 우울 등이다.

정신분석이론과는 달리 Millon(1985)은 사회학습이론의 입장에서 자기에적인 성향을 설명한다. 그는 Kernberg와 Kohut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녀 무시가설’과 정반대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대평가가설 (parental overvaluation hypothesis)’을 주장하였다. 즉 초기 아동기 시절에 부모가 자녀에게 일관되게 과대평가한 것이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원인으로 보았다. 그는 부모의 관대함과 과대평가, 학습된 착취적 행동, 한 자녀 상황 등을 자기에적인 성향에 영향을 미친 환경의 세 가지 요인이라고 말한다. 첫째, ‘부모의 관대함과 과대평가’에서 부모는 아이들을 ‘신의 선물’로 보아 아이들을 응석받이로 키우고 욕망을 실컷 채워주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기들은 각별한 취급을 받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리하여 이 아이들은 가족들로부터 받아왔던

이러한 대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대하여 존중과 칭찬과 찬양을 원하게 되며 타인들과 협조하고 배려하고 책임을 지는 것 등의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아이로 성장한다. 둘째, ‘학습된 착취적 행동’에서 이 아이들은 자신에게 특별한 대우가 주어지지 않으면 시행착오학습을 통하여 자기를 타인들이 배려해주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도록 조정하고 착취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게 된다. 또한 이들은 타인들이 열등하고, 약하고, 착취의 대상이라고 배운다. 이렇게 타인을 착취하는 것을 학습하는 과정은 아동기, 사춘기, 혹은 성인기 어느 때든 시작된다. 셋째, ‘한 자녀 상황’에서는 아이가 ‘선물’ 또는 특별한 가치로 여겨지며 규제나 형제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책임감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아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보다는 자기중심적인 면을 더욱 키워간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각각 또는 합쳐져서 자기에적인 성격이 된다고 한다.

자기에 관련 이론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가 출간하는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편람 제 3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for Mental Disorder-III; DSM-III)에 자기에적 성격장애가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이후 개정된 DSM-IV(1994)에서 진단 준거가 일부 수정되었다. DSM-IV에 기재된 자기에성 성격장애자의 특징은 지나친 자기 사랑과 자기중심성을 보이고 웅대성과 자기중요성을 과시하며 무한한 능력, 권력, 재력, 아름다움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관심과 존경에 대한 욕구를 자주 표현하며 공공연하게 특권 의식을 내세우고 타인을 착취하려는 경향도 보인다.

이후 임상적으로 관찰되는 병리적 자기에와 더불어, 정상인들의 성격적 특성으로서의 자기에 관련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

다(박세란, 2004). Raskin(1980), Raskin과 Hall(1981), Emmons(1984)는 병리적인 자기애는 자기애적 행동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고, 그러한 행동들이 덜 극단적으로 나타날 때는 성격적 특질로서의 자기애가 반영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자기애적 성격을 병리적인 성격장애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정상과 비정상의 연속선상에 위치하여 정상인에게도 그 성향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성격적 특징’으로 보고자 한다.

2) 자기애의 하위 유형 :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over narcissism)와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로 구분되며, 이러한 구분은 이론적(Akhtar & Thomson, 1982)으로뿐 아니라, 경험적(Hendin & Cheek, 1997; Wink, 1991)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는 모두 웅대하면서도 취약한 자기개념이 핵심특징이지만(Kernberg, 1975),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발현 양상은 매우 다르다.

외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은 거대한 자기표상 및 자기과시가 두드러지고, 자신의 웅대성을 밖으로 전시하고 곁에서 보면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DSM-IV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는 여러 특징들은 대체로 외현적 자기애의 특징을 포괄한다. 이들은 성공과 권력, 이상적 사랑에 대한 공상에 자주 빠지며, 과도한 찬사와 특별대우를 요구하고 타인을 착취하며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특성을 보인다(김진순, 2008). 또한 사회적 적응의 측면에서 외현적 자기애는 야심이 강해 성취부분에서 성공적이어서 사회적으로 매력을 가진다. 인지적 측면에서는 지식이 많아 보이고 논리정연하고 단

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자기중심적으로 현실을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지식 획득에 몰두한다(Akhtar & Thomson, 1982).

이에 반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거대자기를 안으로 억압하는 유형으로, 오만해보이는 외현적 자기에와 달리 자기 확신과 주도권이 부족해 보인다. 특히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민감하여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위축되어 있고 불안정하고 소심한 경향이 있다. 타인의 비판에 쉽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고, 거절이나 모욕당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내적으로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김진순, 2008). 이들의 과민한 행동 양상 뒤에는 ‘나는 상처받아서 안 되고, 거절당해서도 안 되며, 못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밉보여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혀있다고 보는 것이다(권석만, 한수정, 2000). 내현적 자기에자는 사회적 적응의 측면에서 목표가 없고 만성적으로 지루함을 느끼며 직업적 정체성도 불확실하다. 인지적 측면에서는 지식이 사소한 것에 제한되어 있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자존감이 위협받을 때 현실의 의미를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Akhtar & Thomson, 1982).

Cooper(2000)는 두 자기에 유형이 공통된 역동을 지니면서도 서로 다른 현상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손상된 자기표상을 복구하기 위해 취하는 방어적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외현적 자기에자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과시적인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하려하고, 내현적 자기에자는 가능한 비판과 비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비난의 단서가 없는지 타인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이다. 외현적 자기에자와 내현적 자기에자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대인관계 행동이다. 외현적 자기에자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고 받아들여질는지, 혹시 불쾌감을 주고 있지 않은지를 잘 깨닫지 못하지만,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대인관계에서의 자신의 위치나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다. 전자가 타인의 반응에 대한 자각 없이 오만하고 공격적이고 자기도취적이라면, 후자인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매우 예민하고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려고 하기도 한다. 또 다른 하나의 차원은 자존감을 유지해가는 방식이다.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적어도 의식수준에서의 자존감은 매우 높다. 이들은 자신의 성취나 재능, 업적 등을 자랑하고 과시하며, 이에 대해 칭찬과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존감을 계속 높이 유지하고자 한다. 또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거절에 대해서 분노 반응을 보이거나 그 사람을 나쁜 사람 혹은 문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자존감을 유지한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략은 자존감에 손상을 입히거나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을 아예 회피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잘못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과 표정 등을 유심히 살피게 된다(권석만, 한수정, 2000).

그동안의 자기애 관련 연구들은 주로 외현적 자기애에 대해 집중되어 있었으나, 근래 내현적 자기애 척도가 개발되면서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보다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한수정, 1999), 주관적인 고통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Wink, 1991) 이에 대한 더 활발한 연구가 요구된다.

3) 부모의 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에 및 진로미결정의 관계

자기에에 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대부분 자기에적 현상의 범위를 외현적 자기에로 국한하고 있다. 최근 국외의 연구에서는 자기에의 기술적 특징에 관한 연구(Carroll, 1987; Raskin, 1980; Hart & Joubert, 1996; Watson, Mckinney, Hawkins & Morris, 1988; Watson & Biderman, 1993), 자기에적 성격과 대인관계 연구(Carroll, Hoenigman-Stovall, King, Wienhold & Whitehead III, 1998; Kerr, Patton, Lapan & Hills, 1994; Kiesler, van Denburg, Sikes-Nova, Larusm & Goldston, 1990), 자기에적 성격의 측정도구에 관한 연구(Hendin & Cheek, 1997; Lapan & Patton, 1986; Morey, Waugh & Blashfield, 1985; Wink & Gough, 1990),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련성 연구(Gerlsma, Emmelkamp & Arridell, 1990; Fukunish, Nakagawa, Nakamura, Li, Hua & Kratz, 1996)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자기에의 특성에 관한 연구(강은영, 2002; 강일선, 2005; 김윤주, 1991; 박동숙, 2004; 박세란, 2004; 백승혜, 2005; 이준득, 2005; 한수정, 1999), 자기에와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강연우, 2004; 권영란, 2002; 김지연, 1997; 정보아, 2000; 최정희, 2005; 최종순, 2003), 자기에의 측정도구 개발 연구(강선희, 2002), 자기에적 성격과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김계령, 1997; 마혜정, 2004; 윤혜신, 2003; 이성희 2001)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에 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현적인 자기에 성향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김계령(1997)은 온정 태도가 높은 부모에게 양육을 받은 집단은 나머지 다른 집단에 비해 자기에 성향이 높으며, 통제 점수가 낮은 집단이나 중간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자기에의 성향이 가장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자기

애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부모의 온정태도와 통제태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므로 과잉보호와 과대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사랑스럽고 완벽하다고 믿게 되고,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간주하게 되고, 타인이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기대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는 Millon의 이론과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성희(2001)는 부모가 애정적, 성취적 양육태도라고 지각한 학생의 자기애적 성격 점수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마혜정(2004)의 연구에서는 자기애 성향의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성취적, 합리적,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자의 어머니 양육태도를 연구한 윤혜신(2003)의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 통제적, 비성취적, 비합리적이라고 지각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장진희(2006)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애, 사회불안과의 관계에서 부모양육태도가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외현적 자기애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하경(2008)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애정이 높을수록 자기애 특성 중 리더십/권위, 특권의식, 우월성/자만, 자기칭찬이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거부가 높을수록 자기칭찬이 낮게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애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진로미결정자들은 높은 수준의 만성적, 불안과 좌절감, 그리고 낮은 자아정체감과 자기 확신 및 자아존중감 등의 특징을 보이는데 (Fuqua & Hartman, 1983), 자기애는 이러한 특성들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 직업적, 사회적 정체성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지나친 민감성과 열등감, 취약한 자기개념, 타인에 대한 시기와 이상화라는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은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확신인 자아정체감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수용과 존중을 뜻하는 자아존중감, 그리

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뜻하는 자기효능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은 힘과 명예를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그와 동시에 열등감과 무가치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만성적인 불안을 겪는데, 불안은 우유부단한 성격(결단성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이혜성, 홍혜경, 1998; 탁진국, 이기학, 2001). 자기에적 성격은 애착대상으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취약함에 대한 보상 내지 방어로 형성되는 것인데, 안정적인 애착과 이에 기반을 둔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내현적 자기가 외현적 자기에 비해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민감하고 불안하며 쉽게 상처받는 등의 부적응적 특징들을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기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외현적 자기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인 NPI(Raskin & Hall, 1979, 1981)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국내에서 발표된 대부분의 자기에 관련 연구들(김계령, 1997; 김윤주, 1991; 김은영, 1996; 김지연, 1998; 권영란, 2002; 이원희, 2001) 또한 NPI를 통해 자기에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에, 진로미결정 세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성별, 학년별에 따른 진로미결정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에, 진로미결정 간에 서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매개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IV.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상도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380명을 대상으로 10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80부를 배포하였는데 그 중 344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자료 12부를 제외하고 332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전공계열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1.88세이었으며, 자세한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332)	백분율(%)
성별	남	93	28.0
	여	239	72.0
학년	1학년	124	37.3
	2학년	75	22.6
	3학년	85	25.6
	4학년	48	14.5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61	48.5
	자연/공학계열	147	44.3
	예/체능계열	22	6.6
	사범계열	2	0.6

2. 측정 도구

1) 직업미결정척도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

진로미결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탁진국과 이기학(2001)이 국내 대학생 표집을 이용하여 한국 문화에 적합하게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문항이다. ① 직업정보 부족(6문항)은 어떤 직업이 장래성이 있는지, 그 직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② 자기명확성 부족(4문항)은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③ 우유부단한 성격(4문항)은 매사 소극적이고 우물쭈물하는 성격으로 인해 직업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를 측정한다. ④ 필요성 인식 부족(4문항)은 현 시점에서 직업선택이나 결정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⑤ 외적 장애(4문항)는 자신이 바라는 직업에 대한 부모의 반대나 주변의 인식에 대한 인지 정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그 중 자신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기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탁진국과 이기학(2001)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는 직업정보부족 .83, 자기명확성 부족 .88, 우유부단 .72, 필요성 인식 부족 .62, 외적 장애 .6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Cronbach's α)가 .89이었으며,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는 직업정보부족 .86, 자기명확성 부족 .89, 우유부단 .80, 필요성 인식 부족 .78, 외적 장애 .70으로 나타났다.

<표 2> 직업미결정척도(K-CII)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하위요인	해당번호	Cronbach's α
1. 직업정보부족(lack of career information)	1, 2, 3, 4, 5, 6	.86
2. 자기명확성 부족(lack of self-clarity)	7, 8, 9, 10	.89
3. 우유부단(indecisiveness)	11, 12, 13, 14	.80
4. 필요성 인식 부족(lack of necessity recognition)	15, 16, 17, 18	.78
5. 외적 장애(external barrier)	19, 20, 21, 22	.70
전체	22 문항	.89

2) 내현적 자기에 척도 (Covert Narcissism Scale; CNS)

Akhtar와 Thomson(1982)이 제안한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개발한 내현적 자기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5문항이다. ①목표불안정(9문항)은 목표설정의 어려움과 불확실성 및 직업적·사회적인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만족의 정도를 측정한다. ②인정 욕구/거대자기 환상(9문항)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으며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매사에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의 정도를 측정한다. ③착취/자기중심성(9문항)은 착취적인 대인관계와 특권의식, 자기중심성을 반영하는 척도이다. ④과민/취약성(10문항)은 자신을 불행하고 무가치하게 느끼고 평가에 예민한 특성을 반영하는 척도이다. ⑤소심/자신감 부족(8문항)은 소심하고 내향적이며 자신감이 부족한 특성의 정도를 반영하는 척도이다.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그 중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기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

이 강함을 의미한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0으로,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는 목표불안정 .89,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81, 착취/자기중심성 .74, 과민/취약성 .80, 소심/자신감 부족 .7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Cronbach's α)가 .93으로,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는 목표불안정 .90,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79, 착취/자기중심성 .76, 과민/취약성 .85, 소심/자신감 부족 .80으로 나타났다.

<표 3> 내현적 자기에 척도(CNS)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하위요인	해당번호	Cronbach's α
1. 목표불안정	5, 15, 20*, 23, 29, 30, 37*, 42, 44	.90
2.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2, 6, 7, 13, 17, 24, 33, 38, 43	.79
3. 착취/자기중심성	4, 9, 11, 12, 16, 22, 27, 35, 45	.76
4. 과민/취약성	3, 8, 10, 14, 19, 25, 26, 31, 36, 40	.85
5. 소심/자신감 부족	1, 18, 21, 28, 32, 34*, 39, 41	.80
전체	45 문항	.93

*은 역채점 문항임.

3) 부모 양육태도 척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한 척도를 기초로 하여 곽윤영(2009)이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각각 따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기존의 양육 방식을 토대로 애정-적대와 자율-통제 차원을 구

성하였으며, 성취-비성취와 합리-비합리 차원을 추가하여 총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척도를 고안하였다. 각 척도에 대한 설명은 <표 4>와 같다.

<표 4> 부모 양육태도 척도의 하위차원 내용

하위차원	내 용	
애정-적대	애정	수용적이며 헌신적이다.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하거나 분위기 조성에 애쓰며, 자녀에게 상담, 칭찬, 격려 등을 아끼지 않는다.
	적대	자녀를 위한 시간을 내주지 않고 자녀의 일에 무관심하며 소홀하다. 자녀에게 비난과 체벌을 자주 가하고 자녀의 단점을 강조한다.
자유-통제	자유	자녀의 개성, 의사, 권리를 존중한다. 지나친 감독과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자녀 스스로 생각을 하게 하고 책임지는 습관을 권장한다.
	통제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고 전제적이다. 자녀에게 엄격하고 많은 제한을 가한다. 설명이다 이유를 제시하기보다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한다.
성취-비성취	성취	높은 포부 수준을 설정하여 달성하기를 격려하며 부지런히 활동하기를 권장한다. 끈기 있게 집중하여 일을 해내도록 기대한다.
	비성취	자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맡은 일에 대한 책임완수 여부에는 무관심하다. 새로운 일이나 경험, 호기심에 대한 욕구에 비협조적이다.
합리-비합리	합리	매사에 이유를 중시한다. 자녀에게 일의 동기나 근거의 제시를 요구한다. 교육에 있어서 이성적인 편이다.
	비합리	이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의 동기나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우선 따지는 편이다. 교육에 있어서 그때 그때의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인다.

각 하위차원은 15개의 문항으로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해 총 60문항에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 원래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사용한 척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곽윤영(2009)은 연구대상이 대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그 중 자신의 부모 양육태도와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기하게 되어 있고, 하위차원별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가 더 애정적이며, 자율적이고, 성취적이며, 합리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곽윤영(2009)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부모 모두 .92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부모 모두 .93이었으며, 각 하위차원들의 신뢰도는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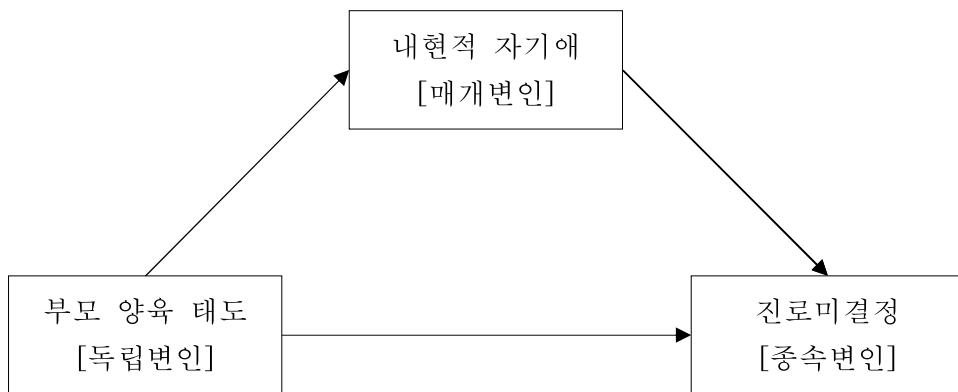
<표 5> 부모 양육태도 척도의 하위차원별 문항 구성

하위차원	해당번호	아버지 Cronbach's α	어머니 Cronbach's α
애정-적대	1,5*,9,13,17*,21*,25,29*,33*,37,41*,45,49,53*,57*	.89	.88
자율-통제	2*,6,10,14*,18*,22,26*,30*,34*,38,42*,46*,50,54,58*	.65	.67
성취-비성취	3,7*,11*,15,19,23*,27,31,35,39*,43*,47*,51,55,59	.76	.73
합리-비합리	4*,8,12*,16,20*,24*,28*,32*,36,40,44,48*,52*,56*,60*	.79	.81
전체	60 문항	.93	.93

*은 역채점 문항임.

3.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를 독립변인, 진로미결정을 종속변인으로 택하였고,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되는 내현적 자기애를 매개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18.0을 통해 분석하였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2)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 3) 성별, 학년별에 따른 진로미결정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 F-검증을 실시하였다.
- 4) 각 변인들(부모 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5) 부모 양육태도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본 연구에서 측정한 부모 양육 태도, 내현적 자기애, 진로미결정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n=332)

변 인		평균(M)	표준편차(SD)	
부모 양육태도	애정-적대	부	45.25	7.96
		모	47.83	7.19
	자율-통제	부	43.20	5.96
		모	42.71	5.18
	성취-비성취	부	44.77	6.05
		모	45.09	5.76
	합리-비합리	부	44.75	6.27
		모	44.98	6.31
	전체	부	355.27	41.44
		모	355.90	41.28

내현적 자기애	목표불안정	24.39	7.50
	인정욕구/거대자기	29.50	5.54
	착취/자기중심성	21.76	5.18
	과민/취약성	27.51	7.24
	소심/자신감 부족	21.94	5.42
	전체	125.10	22.59
진로미결정	직업정보 부족	17.86	5.10
	자기명확성 부족	10.50	4.21
	우유부단	10.89	3.53
	필요성인식 부족	7.36	3.06
	외적장애	7.79	3.11
	전체	54.40	13.30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부 양육태도의 평균은 355.27(표준편차 41.44), 모 양육태도의 평균은 355.90(표준편차 41.28)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내현적 자기애의 평균은 125.10(표준편차 22.59), 진로미결정의 평균은 54.40(표준편차 13.30)이었다.

2. 성별, 학년별에 따른 진로미결정 수준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진로미결정 수준의 차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성별에 따른 진로미결정 수준의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증 결과를 제시하면 <표 7-1>과 같다. 진로미결정 수준이 남녀 집단 간에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한 결과, 평균은 여학생(M=55.82)이 남학생(M=50.7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17$, $p<.01$).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성별에 따른 진로미결정 수준의 차이 (n=332)

변 인	진로미결정			t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93	50.74	14.73	-3.17**
	여자	239	55.82	12.44	

** $p<.01$

2) 학년별에 따른 진로미결정 수준의 차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학년별에 따른 진로미결정의 평균, 표준편차 및 F-검증 결과를 제시하면 <표 7-2>과 같다. 진로미결정 수준이 학년별로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한 결과, 1학년에서 4학년으로 갈수록 진로미결정의 실제 평균 수준은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의 집단에서는 학년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 집단에서는 학년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연구대상자 전체 집단에서는 학년별 진로미결정 수준에 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 전체 집단에서는 학년별 진로미결정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학생은 1학년부터 4학년으로 갈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7-2> 학년별에 따른 진로미결정 수준의 차이 (n=332)

변인	진로미결정			F	유의확률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학년	124	55.65	1.34	.261
	2학년	75	55.39		
	3학년	85	53.18		
	4학년	48	51.83		
남자	1학년	45	51.27	0.14	.936
	2학년	18	51.28		
	3학년	25	49.12		
	4학년	5	52.20		
여자	1학년	79	58.14	2.69	.047*
	2학년	57	56.68		
	3학년	60	54.87		
	4학년	43	51.79		

*p<.05

3.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 진로미결정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변인들 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8-1>, <표 8-2>와 같다.

먼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미결정은 부적 상관($r=-.349, p<.01$)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들 중 외적장애($r=-.359, p<.01$)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직업정보부족($r=-.214, p<.01$), 자기명확성 부족($r=-.225, p<.01$), 우유부단($r=-.192, p<.01$), 필요성인식부족($r=-.263, p<.01$)은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은 높은 정적 상관($r=.652, p<.01$)을 보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진로미결정 수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는 부적 상관($r=-.350, p<.01$)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들 중 과민/취약성($r=-.364, p<.01$), 목표불안정($r=-.350, p<.01$), 소심/자신감부족($r=-.318, p<.01$) 순으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착취/자기중심성($r=-.150, p<.01$)은 낮은 부적 상관,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r=-.025,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 차원이 내현적 자기애($r=-.391, p<.01$), 진로미결정($r=-.355, p<.01$)과 부적 상관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즉, 대학생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합리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1> 부모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에, 진로미결정의 상관관계(n=332)

변인	1	1-1	1-2	1-3	1-4	2	2-1	2-2	2-3	2-4	3	4
1. 부 양육태도	1											
1-1. 부 애정차원	.847**	1										
1-2. 부 자율차원	.695**	.545**	1									
1-3. 부 성취차원	.840**	.754**	.501**	1								
1-4. 부 합리차원	.874**	.789**	.578**	.723**	1							
2. 모 양육태도	1.000**	.841**	.695**	.837**	.875**	1						
2-1. 모 애정차원	.866**	.701**	.424**	.666**	.665**	.866**	1					
2-2. 모 자율차원	.714**	.426**	.690**	.444**	.518**	.716**	.564**	1				
2-3. 모 성취차원	.838**	.587**	.405**	.764**	.632**	.840**	.791**	.577**	1			
2-4. 모 합리차원	.860**	.618**	.464**	.615**	.789**	.864**	.808**	.580**	.759**	1		
3. 내현적자기애	-.350**	-.290**	-.243**	-.250**	-.373**	-.350**	-.261**	-.263**	-.248**	-.366**	1	
4. 진로미결정	-.349**	-.293**	-.229**	-.289**	-.339**	-.348**	-.277**	-.240**	-.284**	-.333**	.652**	1

** $p < .01$

<표 8-2> 부모 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에, 진로미결정의 상관관계 (n=332)

변인	1	1-1	1-2	1-3	1-4	2	2-1	2-2	2-3	2-4	2-5	3	3-1	3-2	3-3	3-4	3-5
1. 부모 양육태도	1																
1-1. 애정 차원	.927**	1															
1-2. 자율 차원	.766**	.577**	1														
1-3. 성취 차원	.893**	.806**	.555**	1													
1-4. 합리 차원	.918**	.824**	.614**	.768**	1												
2. 내현적 자기에	-.350**	-.300**	-.275**	-.265**	-.381**	1											
2-1. 목표불인정	-.350**	-.288**	-.306**	-.290**	-.352**	.736**	1										
2-2. 인정/거대자기화상	-.025	-.008	-.053	-.050	-.081	.627**	.188**	1									
2-3. 취취/자기중심	-.150**	-.108**	-.089	-.006	-.232**	.621**	.283**	.409**	1								
2-4. 과민/취약성	-.364**	-.351**	-.361**	-.282**	-.377**	.880**	.534**	.516**	.422**	1							
2-5. 소심/자신감부족	-.318**	-.271**	-.233**	-.285**	-.333**	.739**	.504**	.248**	.259**	.660**	1						
3. 진로미결정	-.349**	-.308**	-.254**	-.305**	-.355**	.652**	.750**	.202**	.259**	.532**	.513**	1					
3-1. 직업정보부족	-.214**	-.189**	-.154**	-.191**	-.216**	.411**	.514**	.227**	.094**	.346**	.217**	.762**	1				
3-2. 자기명확성부족	-.225**	-.190**	-.165**	-.190**	-.239**	.581**	.731**	.153**	.238**	.449**	.424**	.804**	.529**	1			
3-3. 우유부단	-.192**	-.163**	-.151**	-.166**	-.198**	.592**	.575**	.183**	.152**	.500**	.673**	.672**	.297**	.534**	1		
3-4. 필요상인식부족	-.263**	-.239**	-.144**	-.241**	-.292**	.248**	.338**	-.028	.183**	.156**	.213**	.577**	.271**	.307**	.233**	1	
3-5. 외적강해	-.359**	-.333**	-.299**	-.297**	-.328**	.409**	.388**	.106	.278**	.375**	.292**	.607**	.290**	.308**	.298**	.358**	1

** p<.01

4. 부모 양육태도와 진로미결정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4단계 절차에 따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첫째, 독립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종속변인인 진로미결정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beta = -.349, p < .001$), 둘째, 매개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독립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종속변인인 진로미결정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beta = -.349, p < .001$), 셋째 독립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매개변인인 내현적 자기애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beta = -.349, p < .001$).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진로미결정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beta = -.349, p < .001$), 내현적 자기애도 진로미결정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beta = -.349, p < .001$). 부모의 양육태도만을 포함하였을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의 β 값보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가 함께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β 값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매개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투입되었을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의 효과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내현적 자기애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n=332)

단계	변인	β	R ²	ΔR^2	F
1 독립 → 종속	부모 양육태도 → 진로미결정	-.349***	.122	.119	45.647***
2 매개 → 종속	내현적 자기애 → 진로미결정	.652***	.425	.423	243.538***
3 독립 → 매개	부모 양육태도 → 내현적 자기애	-.350***	.122	.120	46.063***
4 매개 → 종속	내현적 자기애 → 진로미결정	.604***	.441	.438	120.870***
독립 → 종속	부모 양육태도 → 진로미결정	-.137***			

*** $p < .001$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환경적 요인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가족체계 내 부모의 양육태도, 다양하게 변해가는 현대 사회의 흐름 안에서 점차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내현적 자기에 성격 특성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남, 녀 대학생 332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에, 진로미결정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시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미결정 수준을 살펴해보았다. 첫째, 성별에 따른 진로미결정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진로미결정 수준이 유의하게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과 진로결정의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았는데,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진로미결정 정도가 높다는 김현옥(1989), 송영숙(1997), 이현림(2004), 천미숙(2004)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달라진 성별 역할 구조, 직업세계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을 권장하는 사회분위기, 여성 스스로의 직업의식의 변화 등으로 여성의 취업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있지만, 최근의 사회경제적 상황 악화로 인한 취업기회의 감소는 여성의 직업 선택 폭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성은 가정과 진로에 대한 의무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데 비하여 여성은 남성들이 고려하지 않는 많은 다중역할의 문제를 경험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태에 머물러 더욱 진로미결정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학년별에 따른 진로미결정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집단에서는 1학년에서 4학년으로 갈수록 진로미결정의 실제 평균 점수는 점점 낮아졌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학년과 진로미결정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 녀 각각의 집단을 나누어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니, 여학생 집단에서 학년과 진로미결정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1학년에서 4학년으로 갈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년 간 진로결정 수준의 차이가 있으며 4학년의 진로결정 수준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한 고향자(1993), 김봉환(1997)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여대생의 경우 학년이 높아지면서 자신이 선택한 전공과 진로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 점차 방향성을 가지고 안정된 진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 진로미결정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미결정은 부적상관,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은 정적상관,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는 부적상관으로, 세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미결정은 부적 상관($r = -.349, p < .01$)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 진로결정수준도 높다고 보고한 김정희(2000)의 연구,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는 진로확신을 높이고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태도는 진로미결정을 높인다는 이현숙과 조한인(2004)의 연구,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모든 긍정적인 차원은 자녀의 진로결정수준의 진로확신성과 정적상관을, 미결정수준과는 부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김기만

(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대학생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음을 의미하고,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은 높은 정적 상관($r=.652, p<.01$)을 보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격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 즉, 민감하고 열등감을 잘 느끼며 인정을 갈망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진로미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김은석(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는 부적 상관($r=-.350, p<.01$)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낮다는 윤혜신(2003)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자기애적 성격이 애착대상으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취약함에 대한 보상 내지 방어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민감하고 불안해하며 쉽게 상처받는 등의 부적응적인 특징들을 많이 보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적인 양육태도가 내현적 자기애, 진로미결정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대학생이 자신의 부모 양육태도를 합리적인 양육태도라고 지각할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합리적 양육태도의 부모는 자녀가 갖는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중요시하며 자녀에게 일의 동기나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자녀와의 약속을 중요시 여

긴다. 반면에 비합리적 양육태도의 부모는 일의 동기나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우선시하고 자녀와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며 상황에 따라 쉽게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부모가 합리적인 양육태도를 보여줄수록 자녀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4단계 절차에 따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내현적 자기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변인 역할을 함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는 내현적 자기가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미결정 사이의 매개변인 역할까지 수행함을 의미한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일수록 목표불안정이나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과 같은 내현적 자기에 성격 특성의 발현을 낮추어 진로결정을 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탐색하고 내담자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 정도를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진로상담이 이루어진다면 진로미결정 수준을 낮추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진로미결정 관련 연구들이 주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편적인 특성들에 관한 것이었던 것과 달리,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에라는 성격 특성이 진로미결정과 폭넓게 관계될 것이라는 예측을 검증하였으므로, 내담자 각각의 특성

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총체적이면서도 다각적인 방식으로 진로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개인이 가진 특정한 성격적 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라는 개인의 외부 상황을 고려해서 내담자마다 차별적 진단과 처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미결정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초기 청년기에 있는 대학생이 중요한 발달 과업인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이가 되면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보다 수평적인 관계로 재조정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 독립된 개체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성인기로의 전이가 늦어지는 현재 부모의 양육태도는 대학생인 자녀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반면, 앞으로 부모가 될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진로결정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발달에 주요 맥락 변인인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지름길이며 가정 해체의 근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넷째, 복잡하고 다양화되어가는 현대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그 자체의 과민성으로 인해 소심함과 취약함, 불안, 직업적, 사회적 정체성의 불확실성 등을 특징으로 장차 직면하게 될 진로결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이들이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고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어려움은

스스로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목표 설정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직업 정보를 접하더라도 그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일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외적 한계나 주변의 반대를 더욱 과민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신의 목표와 정체성에 기반을 둔 진로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담자는 이러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장, 단점, 흥미, 적성 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통해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일상의 비교적 단순한 일에서부터 출발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세우며 이를 실천해 나아가는 연습을 통해 점차 진로결정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목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및 경상권 지역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여 더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에, 진로미결정이라는 주요 변인들의 관계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는데,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들 간 관계를 모두 파악하여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보는데 있어서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만을 분석, 연구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이혼, 재혼, 부부가 별거, 편부 및 편모 가정에 속하는 대상

자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에 성격 특성만을 가지고 진로결정과의 관계를 밝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여러 변인들을 밝히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서 대학생들이 진로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상담프로그램 및 대학생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역할 및 양육태도와 관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도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강선희(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봉환, 김계현(1995). 진로 미결정에 관한 연구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 한국심리 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1), 20-43.
- 강정임(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향자(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고향자, 강혜원(2003).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관계. 한국 심리 학회지, 15(2), 277-293.
- 국선자(2000).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진로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계현(1995).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계현,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9(1), 311-333.
- 김기만(200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기명(2010). 자기에와 역기능적 진로 사고에 따른 진로미결정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숙(2003).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초등학생의 직업선호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봉환 외 (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빛나(2009).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숙이(200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애착관계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애순, 우현주(2003). 부모의 양육태도 및 심리적 독립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근(2005). 심리적 독립과 애착 및 상호의존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직업적 자아개념을 매개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원식(2002).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초등학생의 진로 인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석(2006).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지지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영(2007).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은진(2001).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 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희(2000).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영(1995). 내·외통제성 및 자아개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권희정(1996). 장애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남상인(198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지양식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맹영임(2002).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수준 및 진로미결정의 관계.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동숙(2004). 내현적 자기애와 불안, 완벽주의, 강박증상간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혜진(2003). 자기애, 자기효능감, 자의식 및 우울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소희숙(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진로성숙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영주(2001). 분리-개별화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불안, 자아정체감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미자(2002). 자아정체감과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한숙, 유계식(1996). 성취동기와 성역할정체감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0, 5-58.
- 오민선(200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독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구노트,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유은진(1987). 육아론. 서울: 문음사.
- 유지선(2004).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경민(2005). 대학생들이 부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경화(1992). 딸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딸의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명자(200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애착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의 차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병권(1996). 지각된 양육태도와 진로성숙 수준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성심(2005). 한국대학생 진로미결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선, 김정희, 이영순(1999). 진로 미결정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애착 및 특성 불안의 관계. 한국진로상담학회지, 4(1), 137-161.
- 이인아(2004).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개념이 진로의식 발달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영(2004). 진로미결정의 선행 변인과 결과 변인으로서의 직업탐색행동 및 구직 성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자(200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정(2008). 대졸예정자들이 개인적 특성이 진로미결정 및 직업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희영, 최태진(2005). 부모의 양육행동과 후기 청소년의 심리적 분리와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6(2), 93-123.
- 이희주(2005). 발달심리학. 부산: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 임상옥(200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직업가치관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문영(2005).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귀인성향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영지(1995). 아동,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개념과 부모의 양육태도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지선(2004).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 및 애착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태자(2004). 고등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 및 애착과 자아개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하나(2009). 내현적 자기에 특성과 자기조절 학습전략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주관적 안녕감 차이.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승진, 최송미, 이상선(2000). 대학생의 전공 및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 연세상담연구, 16, 37-53.
- 정은희(1993).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주수(200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채기(1991). 자아상념, 자아정체감 및 내·외통제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행욱(2005). 여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성역할정체감 및 진로포부의 관계.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현진(2003).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좌태실(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진은영(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정상경험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석강(200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수인(2006).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영미(2009). 부모 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 부적응적 완벽주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진로교육학회(1990).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한수정(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수현(2003).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마리(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면적 자아개념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혜자, 최윤희(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집, 22(1), 285-304.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 Bandura, A.(1978). Reflections on self-efficacy. Advances i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 1(4), 237-269.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39-50.
- Cohen, C. R., Chartrand, J. M., & Jowdy D. P. (1995).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subtypes and ego identity

-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4), 440-447.
- Ferry, T. R., Fouad, N. A., & Smith, P. L. (2000). The role of family context in a social cognitive model for career-related choice behavior: a math and scienc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7(3), 348-364.
- Fuqua, D. R., Newman, J. L., & Seaworth, T. B. (1988). Relation of state and trait anxiety to different compon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2), 154-158.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510-526.
- Gordon, V. N. (1998). Career decidedness types: A literature review.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386-403.
- Hackett, G.,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Hartman, B. W., Fuqua, D. R., & Jenkins, S. J. (1986). The reliability/generalizability of the construc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8, 142-148.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588-599.
- Holland, J. I.,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15.

Jinkook Tak, Ki-Hak Lee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3), 328-345.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and College Students' Career Indecision

Hong, na-young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on career indecision and to find out whether covert narcissism plays a role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and career indecision. 332 university stude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which was comprised with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Cover Narcissism Scal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Scal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was found to have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ir career indeci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university students'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influences their career indecision and that as the students were perceived positive (affection, self-regulation, accomplishment, and

reasonability), they have less career indecision.

Second, the students'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was found to have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ir covert narcissism. This means that as the students were perceived positive (affection, self-regulation, accomplishment, and reasonability), they have less covert narcissism.

Third, the students' covert narcissism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with their career indecision. This means that as the level of covert narcissism goes up, their level of career indecision also rises.

Fourth, the reasonable parental rearing attitud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with their covert narcissism, career indecision. This means that as university students were perceived reasonable, their level of covert narcissism and career indecision was low.

Fifth, an examination was made to see whether covert narcissism served as a mediator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and university student's career indecision. Covert narcissism is considered to partly mediate the effect of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on career indecision. In conclusion,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influenced the university students' career indecision, covert narcissism served as a mediator.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suggestion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discussed.

* Key words : career, career counseling, career indecision, parental rearing attitude, cover narcissism.

부 록

부록 1. 직업미결정 척도

부록 2. 내현적 자기에 척도

부록 3. 부모 양육태도 척도

[척도1] 직업미결정척도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

※ 다음은 진로결정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나열할 것입니다.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찾아 그 숫자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은 정답이 없으므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전공에 적합한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1	2	3	4	5
2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1	2	3	4	5
3	내가 바라는 직업의 장래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1	2	3	4	5
4	내가 바라는 직업이 있으나 어떻게 해야 그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1	2	3	4	5
5	어떤 직업이 전망이나 보수가 좋고 사회의 수요가 많은지 모르겠다.	1	2	3	4	5
6	어떤 종류의 직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7	내 흥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1	2	3	4	5
8	내 적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1	2	3	4	5
9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1	2	3	4	5
10	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1	2	3	4	5
11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물쭈물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2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	1	2	3	4	5
13	나는 매사에 소극적이다.	1	2	3	4	5
14	내가 바라는 직업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1	2	3	4	5
15	아직 이르기 때문에 직업 선택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1	2	3	4	5
16	미래의 직업을 현 시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1	2	3	4	5
17	현재로서는 직업 선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18	내 인생에서 직업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19	집안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내가 바라는 직업을 추구하기 어렵다.	1	2	3	4	5
20	내가 바라는 직업을 부모님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갈등이 된다.	1	2	3	4	5
21	내가 바라는 직업을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1	2	3	4	5
22	학벌이나 연령 때문에 내가 바라는 직업을 갖기가 어렵다.	1	2	3	4	5

[척도2] 내현적 자기에 척도 (Covert Narcissism Scale; CNS)

※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에 일치하는 번호를 찾아 그 숫자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은 정답이 없으므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 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3	비판 받았을 때, 나는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1	2	3	4	5
4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많은 돈을 쓰기를 바란다.	1	2	3	4	5
5	나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1	2	3	4	5
6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처럼 그려보고 싶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다.	1	2	3	4	5
8	나는 가끔 남의 비평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1	2	3	4	5
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해 올 때에 때때로 짜증이 난다.	1	2	3	4	5
10	가족들 중에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11	나에게 즐거운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12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로 와서 나에게 시간을 내주기를 요구하거나 공감해주기를 요구할 때, 말은 못해도 괴롭고 귀찮다.	1	2	3	4	5
13	나는 내가 잘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14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15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1	2	3	4	5
16	속기보다 차라리 남을 속이는 것이 좋다.	1	2	3	4	5
17	나는 내게 부족한 것(예를 들면, 외모나 돈, 혹은 능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난다.	1	2	3	4	5
18	때때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할 때가 있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인생은 남들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1	2	3	4	5
20	내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1	2	3	4	5
21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	1	2	3	4	5
22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접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1	2	3	4	5
23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24	나는 내가 여러 가지 일에서 모두 뛰어나기를 바란다.	1	2	3	4	5
25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	1	2	3	4	5
26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	1	2	3	4	5
27	필요하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28	나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든 항상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앉는 편이다.	1	2	3	4	5
29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1	2	3	4	5
30	내가 앞으로 가질 직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할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31	나는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면, 두고두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편이다.	1	2	3	4	5
32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활기가 적은 편이다.	1	2	3	4	5
33	나는 사람들이 왜 나의 장점을 좀 더 알아주지 않은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34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1	2	3	4	5
35	나는 나에게 이득이 될 때만 '공평의 원칙'을 지킨다.	1	2	3	4	5
36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종종 매우 외롭고 불편하다.	1	2	3	4	5
37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낀다.	1	2	3	4	5
38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39	나는 혼자서는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40	요 며칠 동안 나는 계속 슬프고 우울했는데, 쉽게 이런 기분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그 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41	누군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공부나 일을 하는 것은 아주 힘이 든다.	1	2	3	4	5
42	나는 일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1	2	3	4	5
43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1	2	3	4	5
44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1	2	3	4	5
45	기회만 된다면 나는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척도3] 부모 양육태도 척도

※ 다음은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여러분을 대하시는 태도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1년간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행동을 떠올리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를 찾아 숫자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은 정답이 없으므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문 항	어머니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나와 다정하게 자주 얘기를 하신다.	1	2	3	4
1	2	3	4	2.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물건까지도 사다주신다.	1	2	3	4
1	2	3	4	3. 공부에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 주신다.	1	2	3	4
1	2	3	4	4. 내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면 싫어하시는 편이다.	1	2	3	4
1	2	3	4	5. 화가 날 때 식구들한테 화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1	2	3	4	6. "자기 일은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	1	2	3	4
1	2	3	4	7.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그것도 모르냐 하고 편잔을 잘 주신다.	1	2	3	4
1	2	3	4	8. 형제들을 야단치실 때 차별하는 일이 없다.	1	2	3	4
1	2	3	4	9. 내가 실수하여 일을 잘못했을 경우라도 꾸짖기보다는 애썼다고 격려해 주시는 편이다.	1	2	3	4
1	2	3	4	10.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면 내게 맡겨 주신다.	1	2	3	4
1	2	3	4	11.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바보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1	2	3	4
1	2	3	4	12. 기분이 나쁠 때에는 내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시는 때가 많다.	1	2	3	4
1	2	3	4	13. 가족들과 함께 게임할 수 있는 자리 만들기를 좋아하신다.	1	2	3	4
1	2	3	4	14. 이 분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지 않으면 야단맞기 쉽다.	1	2	3	4
1	2	3	4	15.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일 자체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	1	2	3	4

아버지				문 항	어머니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6. 한번 약속하신 것을 잘 지키신다.	1	2	3	4
1	2	3	4	17. 큰 잘못이나 이유 없이도 나를 꾸짖는 경우가 많다.	1	2	3	4
1	2	3	4	18. 내가 하는 일이 옳더라도 이 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하신다.	1	2	3	4
1	2	3	4	19. 위인들의 훌륭한 업적이나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자주 들려주신다.	1	2	3	4
1	2	3	4	20. 형제 중에서 어떤 자녀를 특히 더 귀여워하고 사랑해 주신다.	1	2	3	4
1	2	3	4	21. 내 말을 아주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1	2	3	4
1	2	3	4	22. 나의 말과 행동에 별로 간섭하지 않는 편이다.	1	2	3	4
1	2	3	4	23. 일을 시킨 후에 만약 잘못하면, '너에게 맡긴 내가 잘못이지'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	1	2	3	4
1	2	3	4	24.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도 내가 끈질기게 조르면 귀찮아서 하는 수 없이 허락해 버리신다.	1	2	3	4
1	2	3	4	25. 내가 어떤 일로 걱정을 하고 있으면 함께 의논해 주신다.	1	2	3	4
1	2	3	4	26.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도록 나에게 요구하거나 시킬 때가 많다.	1	2	3	4
1	2	3	4	27. 새로운 일에 대해서 나와 함께 얘기하거나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1	2	3	4
1	2	3	4	28. 손님이 오셨을 때 이 분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평소와 다를 때가 많다.	1	2	3	4
1	2	3	4	29. 하찮은 일로도 바보나 멍청이 같다고 꾸중하시는 편이다.	1	2	3	4
1	2	3	4	30.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나에게 관한 일을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다.	1	2	3	4
1	2	3	4	31. 하던 일은 끝까지 마쳐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신다.	1	2	3	4
1	2	3	4	32. 기분이 좋을 때는 잘해주시고, 기분이 나쁘면 뚜렷한 이유 없이 야단치시곤 한다.	1	2	3	4
1	2	3	4	33. 내 말이라면, 우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	2	3	4

아버지				문 항	어머니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34. 나한테 관련된 일이라도 이 분의 허락 없이는 내 맘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신다.	1	2	3	4
1	2	3	4	35. 모든 일을 열심히 하라고 자주 말씀하신다.	1	2	3	4
1	2	3	4	36. 어떤 일에 부딪히든 간에 이치와 경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자주 말씀하신다.	1	2	3	4
1	2	3	4	37.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계신다.	1	2	3	4
1	2	3	4	38. 나의 일은 나 스스로 직접 결정하도록 맡겨주는 편이다.	1	2	3	4
1	2	3	4	39. 내가 어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생겨 그 일에 열중해 있으면 엉뚱한 짓을 한다고 나무랄 때가 많다.	1	2	3	4
1	2	3	4	40. 내게 벌을 줄 때, 대개 그 이유를 설명해주신다.	1	2	3	4
1	2	3	4	41.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거의 말상대를 안해주시는 편이다.	1	2	3	4
1	2	3	4	42.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할 때가 많다.	1	2	3	4
1	2	3	4	43.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면 실수를 할까봐 걱정부터 하신다.	1	2	3	4
1	2	3	4	44. 비록 어린이의 말이라도 이치에 맞는 말은 존중해 주는 편이다.	1	2	3	4
1	2	3	4	45. 내가 질문을 하면 아시는 데까지는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애쓰신다.	1	2	3	4
1	2	3	4	46.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미리 이 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	2	3	4
1	2	3	4	47. 새로운 일이나 여행은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신다.	1	2	3	4
1	2	3	4	48. 꼭 해야 할 일인데도, 내가 하기 싫다고 하면 내버려 두시는 편이다.	1	2	3	4
1	2	3	4	49.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관심을 갖고 들어주신다.	1	2	3	4
1	2	3	4	50.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거의 허락해주시는 편이다.	1	2	3	4
1	2	3	4	51. 내가 여러 가지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신다.	1	2	3	4

아버지				문 항	어머니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2. 잘못하게 된 원인이나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꾸중하실 때가 많다.	1	2	3	4
1	2	3	4	53.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우선 화부터 내시는 편이다.	1	2	3	4
1	2	3	4	54. 공부나 집안일을 돕는 것 등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맡긴다.	1	2	3	4
1	2	3	4	55.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1	2	3	4
1	2	3	4	56. 가끔 적당하지 못한 명령을 무조건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일이 많다.	1	2	3	4
1	2	3	4	57. 나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1	2	3	4
1	2	3	4	58. 나에게 "이것은 안돼", "저것은 하면 못쓴다" 등과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신다.	1	2	3	4
1	2	3	4	59. 내 능력이나 힘에 좀 벅찬 일이라도 나에게 해보라고 권장하시는 경우가 많다.	1	2	3	4
1	2	3	4	60. 내가 나쁜 짓을 해도 꾸중하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일이 많다.	1	2	3	4